

농업중앙회는 군(軍)납품 쇠고기를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하라!

— 수입쇠고기 군납 재개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

참으로 답답하다. 농협과 국방부가 지난해 8월부터 중단된 수입쇠고기의 군 급식을 오는 4월부터 재개키로 하고 최근 농협과 ‘급식품목 생산조달 협정’을 맺었다고 한다. 우리 젊은 군 장병들의 식탁에 미국산 쇠고기가 오를 가능성을 열어준 이번 계획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시, 전국민의 분노에 밀려 수입쇠고기 군 급식을 중단했다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은근슬쩍 다시 끼워 맞추려는 모양이다. 농협과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급식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곧 여건만 되면 급식을 하겠다는 말과 진배없다. 우리 군 장병들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농업피해에 대한 선대책 마련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문지마 FTA”를 줄줄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정부가 FTA를 추진 또는 체결한 국가인 뉴질랜드, EU, 호주, 미국은 세계 유제품 수출 1위부터 4위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낙농 초강대국들이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로 직접적인 경쟁상대인 우리 육우산업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육우산업의 붕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낙농의 피해로 또 다시 귀결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입쇠고기의 군납재개 소식은 우리 낙농육우 농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이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불신과 실의에 빠진 농심(農心)을 직시하길 바란다. 진정 우리 국민의 건강과 이 땅의 축산업을 걱정한다면, 정부와 농협은 우선 수입쇠고기의 군납 재개 계획부터 즉각 폐기하고 모든 군 납품 쇠고기를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3. 12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육우분과위원회